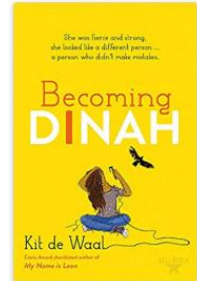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BECOMING DINAH
가제 : 디나 이야기
저자 : Kit de Waal
출판사: Orion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9년 7월 1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데뷔 소설로 코스타 어워드 결승에 오른 작가의 YA 신작

* 『모비딕』에서 모티브를 얻은 소설 - 집착과 자기 발견, 그리고 여성의 힘에 관한 이야기

뉴베드퍼드의 외딴 곳에 형성된 작은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녀가 거울 앞에 서서 가위를 집어 든다.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하는 풍성하고 윤기 흐르는 긴 머리, 등 전체를 덮은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디나의 손에 들린 가위 끝에서 싹둑, 또 싹둑 잘려 나간다. 목과 어깨에 뼈근한 통증을 안겨주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광대는 와중에 묵묵히 가위질을 멈추지 않은 디나는 곧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낮은 자신의 모습과 마주한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머리를 모두 밀고, 얼마 안 되는 옷가지를 챙겨 넣고, 17년간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이 공동체를 서둘러 떠나야만 한다. 그러나 디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밤공기 속으로 막 나가려던 찰나,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이웃 에이햄 아저씨와 마주친다.

의족은 온데간데 없고 흥뻑 젖어 돌돌 말린 바지 한 쪽을 바람에 나부끼며 빗자루를 목발 삼아 거의 기다시피 집에 들어선 에이햄은 떠나려는 디나를 붙잡는다. 자신도 남쪽으로 가야하니 대신 운전을 해주면 400파운드를 주겠다는 그의 제안은 앞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능조차 되지 않는 디나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온다. 그와 둘이서 이 공동체를 함께 빠져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잠시 주저하던 디나는 큰 도로로 나가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에이햄과 함께 떠나기로 결심한다. 익숙한 세계를 떠나 세상을 향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처음으로 확인하는 디나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1850년대에 나온 소설 『모비딕』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된 이 소설은 『드라큘라』에서 모티브를 얻은 키란 밀우드 하그레이브의 소설 『The Deathless Girls』와 함께 출판사가 YA 페미니스트 시리즈로 기획한 ‘벨라트릭스’의 출발점이 될 신작이다. 잘 알려진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설들로 채워질 이 시리즈는 ‘여전사’를 뜻하는 벨라트릭스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여주인공이 당당히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참신한 이야기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데뷔작으로 코스타 북 어워드 결승에 오르며 소설가로서의 재능을

확인 받은 저자는 이 YA 신작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엄마의 굳건한 믿음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진 공동체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야 했던 소녀 디나가 제 발로 그 좁고 한정된 세상을 벗어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모비딕의 선장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같은 공동체 구성원 에이행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여행을 시작한 디나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였던 긴 머리카락을 전부 잘라내는 것으로 공동체와의 이별을 선언한다. 그리고 홀로 어디든 가서 살 곳을 찾겠다는 계획을 보류한 채, 오랜 원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걸핏하면 화를 터뜨리는 에이행의 설득에 넘어가 불법으로 탈취한 낡은 밴을 끌고 수백 마일을 운전한다. 무엇이 디나를 이런 상황까지 내몰았을까? 소설은 장이 바뀔 때마다 디나의 어린 시절과 탈출을 감행한 현 시점을 번갈아 보여주며 공동체에서 벌어진 일들, 에이행의 정체,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다가오는 혼란스러운 미래를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의 현재 모습을 구성하는 무수한 요소들, 정체성의 본질과 집착이 불러온 결과를 철학적으로 고찰한다.

평화로운 곳을 찾아 세상을 떠돌던 디나의 엄마는 같은 목적으로 세계를 유랑하던 디나의 아빠와 만났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하얀 드레스와 턱시도, 신부님의 승인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다.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자연 앞에서 서로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다 뉴베드퍼드에 세상이 당연시하는 규칙을 거부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부는 그곳에 정착한다. 디나가 태어나고, 세 가족은 같은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던 에이행, 캐롤라인 부부와 부쩍 가까워진다. 에이행 부부의 아들 조나는 디나보다 세 살이 더 많았고 어린 시절에는 디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친 오빠 같은 존재였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홈스쿨링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하루 종일 산과 들에서 뛰놀고, 어른들이 이끄는 대로 명상을 하고, 지혜를 배우며 살았던 그 시절은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지만, 꿈 같던 시간은 금세 사라졌다. 디나는 어느 날부터 엄마아빠가 절대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결국 디나가 열두 살 때 아빠는 공동체를 떠나고 말았다. 오래 지나지 않아, 아빠가 엄마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에이행의 아내, 조나 오빠의 엄마인 캐롤라인과 사랑에 빠졌으며 그 사실을 숨겨서 엄마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디나도 알게 된다. 아빠와 조나,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던 캐롤라인을 한꺼번에 잃은 디나는 펑펑 우는 엄마 곁을 지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엄마가 고집스레 추구해온 평화와 행복을 이 작고 좁은 공동체 안에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은 디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정적인 계기로 인해 모든 미련을 버리고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바깥 세상으로 나간 디나, 그리고 우연히 그 길을 함께 하게 된 에이행의 불편한 동행은 두 사람이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게 하고, 디나는 마침내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혼란스러운 이들이 모두 공감할 만한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키트 드발(Kit de Waal)은 치안판사로 15년 이상 형법, 민법을 다루는 법조인으로 일했다. 2016년에 발표된 데뷔작 『MY NAME IS LEON』으로 코스타 북 어워드 결승에 올랐다.

제목 : TULIP TAYLOR
가제 : 뷰티 블로거 툴립
저자 : Anna Mainwaring
출판사: Firefly Press
발행일: 2019년 6월 20일
분량 : 250 페이지
장르 : 미들 그레이트 소설



*** 10-14세를 위한 페미니스트 로맨틱 코미디 - 야생 서바이벌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열다섯 살 뷰티 블로거, 입글로스와 인스타그램이 없는 환경에서 마침내 깨달은 진정한 아름다움**

학교에서 화장을 가장 잘 하는 아이,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 아니라면 어디에도 외출하지 않고 셀카 찍는 기술도 수준급인 툴립은 꽤 유명한 뷰티 블로거다. 틈날 때마다 어떤 주제로 메이크업 노하우를 전할지 꼼꼼하게 기획해서 생방송으로 20분 정도 직접 화장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툴립의 개인 채널은 구독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르고 새로운 영상이 하나 올라올 때마다 곧바로 수백 명이 ‘좋아요’를 누른다. 또래 친구들 집에서는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일이나 한다며 크게 혼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툴립의 경우는 정반대다. 툴립보다 채널 운영에 훨씬 관심이 많은 엄마는 매일 엑셀 시트까지 돌려가면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정도다. 그런데 학기 중에 아주 특별한 남학생이 전학을 오면서, 기왕이면 더 예쁘게,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도록 사람들 특히 비슷한 또래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화장법을 소개하는 일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툴립의 삶은 크게 흔들린다. 유명한 방송인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전학을 오기 전부터 이미 소문이 자자했던 하비는 학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가상 현실에 푹 빠져 사는 툴립 같은 아이들만큼 한심한 존재들도 없다며 노골적으로 시비를 건다. 그런다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툴립이 아니었다. 자기 만족, 외모 지상주의, 시간 낭비와 물질 낭비, 허영심에 불과하다는 하비와 기다렸다는 듯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아이들, 선생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결심한 툴립은 리얼리티 TV쇼 출연 제의가 들어오자, 자신을 향한 오해를 제대로 풀어줄 기회라 확신한다. 하루는 고사하고 단 한 시간도 인터넷 없이는 못 사는 툴립은 살아남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거친 야생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거울만 들여다보면서 더 예뻐질 방법만 궁리하는 머리 텅텅 빈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사실 툴립이 하비 아버지가 진행하는 별난 쇼에 출연하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격도 좋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온 그를 심하게 질투해온 형 핵터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를 거의 영웅처럼 떠받드는 핵터는 아버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자 늘 리더였던 아버지처럼 전교생을 휘어잡는 존재가 되고 싶어했고, 그런 욕망을 잘 아는 하비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자진해서 툴립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것이다. 하지만 핵터는 멀리 떨어져서도 하비를 가만

두지 않았다. 하비와 같은 반에 꽤 인기 있는 뷰티 블로그를 운영하는 여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비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공개적으로 툴립을 비웃고 자극하는 포스트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하비가 당장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지만, 헥터는 남의 말을 듣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 즈음, 튼튼한 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외딴 자연 속에서 장기간 생존하는 법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들을 그러한 환경에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두 형제의 아버지는 십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야생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 중이었는데, 급기야 헥터는 하비를 사칭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적으로 툴립을 이 프로그램에 끌어들인다. ‘맨날 화장하고 거울 들여다보느라 바쁜 툴립 같은 아이들은 이런 환경을 하루도 못 견딜 것!’이라며 비웃은 내용에 학교 친구들은 물론, 툴립의 뷰티 채널을 구독해온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툴립은 졸지에 가만 있으면 그 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반박하려면 방송 출연을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아빠에게 질려 툴립의 인기를 어떻게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생각에 심취해 있던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툴립은 선택권을 모두 빼앗긴다. 가족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출연을 해야 한다며 밀어 부치는 엄마에게 떠밀려 결국 신청서를 내고 8일간 야생에서 생활할 10인의 청소년 중 한 명으로 뽑힌 하비는 헥터의 계약으로 처음부터 우승 가능성은 제로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낯선 방송의 세계로, 화장품과 스마트폰, 거울이 없는 대자연 속에 첫 발을 들인다. 이 도전을 당당히 해내서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 외에 세상 아무 일에도 관심 없는 바보로 여기는 사람들의 편견을 제대로 뒤집어주리라 굳게 다짐했다. 헬리콥터에서 떨어지고, 비명을 지르고, 물에 빠지고, 상어에게 쫓겨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대고, 길도 나 있지 않은 숲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온 몸과 얼굴이 땀과 먼지, 재에 뒤덮인 채로 마지막 생존자가 되기 위해 고투를 벌이는 툴립의 모습은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 첫 회 방송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평소 같았으면 카메라에 얼굴이 제대로 잡히는지 초 단위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겠지만 컴퓨터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전혀 없는 곳에서 정말로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느라 툴립은 그런 엄청난 반응이 일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가까스로 탈락 위기를 넘기며 최종 우승까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툴립은 찾아온 엄마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다. 그런데 며칠 만에 손에 쥔 스마트폰에서 확인한 것은 순수한 인기가 아니었다. 악마처럼 교묘한 짜깁기 편집에 의해, 툴립은 외모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멍청한 여자아이로 그려졌고 자연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들도 전부 그런 시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용감하게 이겨낸 순간들은 싹 지워졌다. 형의 계획이 툴립을 망치고 있음을 깨닫고 도와주러 달려온 하비와 이 비뚤어진 인기를 흠족해하는 엄마, 툴립은 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와 미적 기준의 의미를 비로소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압박감, 동전의 양면 같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잘 포착한 재미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애나 메인워링(Anna Mainwaring)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은행에서 잠시 일하다가 영어 교사가 되었다. 저서로는 『Rebel with a Cupcake』 등이 있었다.